



16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결승전에서 24대의 마신들이 광음을 울리며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흥행·운영 합격, 지속개최 확신 얻었다



코리아 그랑프리

관련기사 2·3·5·6·16·18면

올해로 두번째를 맞은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가 16일 결승전을 끝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이번 대회는 구름 관중이라는 흥행과 비교적 원활한 교통대책 등 운영 측면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운영주체 변경과 일부에서 제기된 지속개최 의문속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전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쳐 코리아 그랑프리의 지속 개최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 코리아 그랑프리는 12개 팀 24명의 F1 드라이버가 출전한 가운데

14일 연습주행과 15일 예선전에 이어 16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모든 레이스를 마쳤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연인원(3일) 16만여명(외국인 1만여명 포함)이 넘는 구름 관중이 몰리며 단일 스포츠사상 국내 최대 인파라는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흥행 대박을 떠뜨렸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결승전 8만 4124명을 포함해 3일 동안 16만 186명이 영암서킷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공짜 관람객이 없는데다 유료 티켓 소지자의 좌석 점유율도

착실한 준비·홍보로 16만명 구름관중

교통·숙박 대책 원활...재정 확보 과제

90%를 넘어 내실있는 대회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했다.

교통과 숙박도 별다른 문제를 노출하지 않아 운영측면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큰 불만을 산 교통문제는 일찌기 우회도로를 개통하고 경주장 외곽 지역에 무료 셔틀버스를 연계한 환승주차장(2만2900대) 설치와 가변차로제 도입으로 교통량을 분산해 심한 체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은데는 관람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 몫했다. 결승전이 열린 16일의 경우 대회 개막 2시간 전에 관람석의 3분2거

이 할 정도로 미리 경주장을 찾아 교통량 분산에 도움을 줬다.

숙박문제도 지난해 일부 외신에서 거론한 러브호텔 문제나 바가지 요금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장내에 90여개의 식음료 부스를 마련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 점도 원활한 대회 운영에 도움을 줬다.

또 세계 최장의 직선 구간과 고속·중속·저속의 테크닉을 짧은 코스에서 연속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영암서킷으로 인해 경주 자체의 흥미를 더한 점도 성공 개최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빗속에서 열려 가장 흥미로

운 서킷으로 평가받은 영암서킷은 올해도 드라이버들이 끝까지 선두다툼을 벌일 정도로 박진감을 줬다.

F1 파워블로거인 SBS ESPN 윤재수(40) 해설위원은 “재정적인 측면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대회였다”며 “흑자를 내는 대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개최 가능성을 보인만큼 국가차원에서 코리아 그랑프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페텔 독주 우승

해밀턴 큰차로 따돌려
올 시즌 챔피언 재확인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샤진)이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F1(포뮬러)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일본 그랑프리에서 올 시즌 월드챔피언을 확정짓고 페텔은 한국 그랑프리에서 ‘챔피언’인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페텔은 16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1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16 라운드 경기에서 5.615km의 서킷 55바퀴(총길이 308.63km)를 1시간38분01초994에 달려 포디엄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전날 예선에서 2위로 결선에 나섰던 페텔은 전체 55바퀴 가운데 첫번째 바퀴에서 예선 1위로 올라온 루이스 해밀턴(26·영국·맥라렌)을 따돌린 뒤 경주내내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페텔은 이로써 시즌 개막전인 호주 대회를 비롯, 말레이시아·터키·스페인·모나코·유럽·벨기에·이탈리아·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10승을 챙기며 ‘월드챔피언’임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 레드불 레이싱팀은 마크 웨버(35·호주)가 3위를 차지하면서 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컨스트럭터 챔피언

십’도 확정했다.

2위는 루이스 해밀턴(26·영국·맥라렌)이 차지했고 지난 시즌 한국대회 우승자 알론소(5위)에 그쳤다. ‘F1 전설’미하엘 슈마허(42·독일·메르세데스)는 17번째 바퀴를 돌다가 비탈리 페트로프(27·러시아·르노)와 충돌, 레이스를 포기했다.

한편 이날 우승 선수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김창식 국무총리관, 우승팀 시상식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위 선수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각각 시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韓美 다원적 전략동맹 확대

양국 정상회담...오바마 내년 3월 답방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환율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간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를 비롯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제재를 위해 양국간 공동지원방

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환대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토록 초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5박6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연합뉴스

행복한 미소
해피니스컨트리클럽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고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해피니스CC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는
해피니스CC회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1회 18홀 기준)
 -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 개역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휴먼 정회원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70회 사용, 1일 1회 사용)

※ 개역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 1억원
- 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C형, D형 중 선택(1)
 - C형) 무기명카드 1매 :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 개역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주중 / 평일 정회원

-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 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 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